

- 주요 뉴스: 중국 정부의 봉쇄지역 확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
 - 모건 스탠리, S&P500 지수는 약세장(Bear Market) 국면에 진입할 전망
 - EU 부위원장, 러시아 6차 제재에 석유수입의 단계적 축소가 포함될 가능성
 - 중국 인민은행,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1%p 인하. 위안화 약세 방어가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국 경기둔화 불안 및 국채금리 상승이 과도했다는 시각이 영향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Twitter 매각 성공과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매수세 강화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 관련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1.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과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을 반영
유로화가는 0.7% 하락, 엔화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자가 매수 유입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50.5원, +0.6원) 포함, 한국 CDS 상승

		4/25일	4/22일	전일대비			4/25일	4/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96.1	4,271.8	0.57%	국채 금리 10y	미국	2.82%	2.90%	-8bp
	유럽	445.11	453.31	-1.81%		독일	0.84%	0.97%	-14bp
	중국	2,928.5	3,086.9	-5.13%	CDS 5y	한국	38bp	36bp	2bp
	일본	26,591	27,105	-1.90%		중국	79bp	73bp	6bp
	한국	2,657.1	2,704.7	-1.76%	위험 지표	EMBI+	-	396	-
환율	달러지수	101.74	101.22	0.51%		VIX	27.02	28.21	-4.22%
	유로화	1.0713	1.0790	-0.71%		WTI유	98.54	102.07	-3.46%
	엔화	128.14	128.50	0.28%	원자재	구리	444.9	458.2	-2.89%
	위안화	6.5594	6.5014	-0.88%		금	1,897.8	1,931.6	-1.75%
	원화	1,249.9	1,239.1	-0.8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정부의 봉쇄지역 확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

- 정부는 상하이에 이어 인구 350만명의 베이징 차오양구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 봉쇄 조치가 상하이 뿐 아니라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자,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우려가 증폭
-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외 여건도 경기회복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 이에 다수의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중국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으며, IMF 역시 최근에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4.8%→4.4%)
- 이를 반영하듯 최근 증시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지속. 4/25일에는 관련 우려가 확대되면서 상해종합지수는 5.13% 급락했고,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도 역외시장에서 '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정책 당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 및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봉쇄조치 관련 강경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가능성
- Deutsche Bank의 Jason Liu는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모건 스탠리, S&P500 지수는 약세장(Bear Market)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모건 스탠리의 Michael Wilson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통화긴축 및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S&P500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 경기방어주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 'The Gartman Letter' 발행자였던 Dennis Gartman도 금리인상의 여파로 S&P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1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 독일 3월 Ifo 경기업황지수, 예상과 달리 상승. 양호한 경제회복력 등이 반영

- 해당 지수는 91.8을 기록하여 전월(90.8) 및 예상치(89.1) 상회. 하지만 향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경기업황지수 역시 하락할 소지

■ EU 부위원장, 러시아 6차 제재에 석유수입의 단계적 축소가 포함될 가능성

- 돔브로프스키스 부위원장은 추가 제재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압력 극대화 및 EU에 대한 충격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단계적 축소, 일정 수출금액 이상에 관세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
- 다만 보렐 외교안보 상임대표는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1%p 인하. 위안화 약세 방어가 목적

- 이번 결정으로 은행은 5/15일부터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9%에서 8%로 조정. TD 증권사의 Mitul Kotecha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외화 보유 유인을 약화시켜 위안화 가치의 달러화 대비 하락을 방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일부 부동산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규제 완화를 용인. 또한 인민은행 왕이밍 위원은 금년 경제성장을 목표 5.5% 달성을 위해서 거시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 일본 정부, 고물가 대응책으로 6.2조엔 규모의 재정을 지출

- 원유가격 상승 대책에 1.5조엔, 에너지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0.5조엔, 중소기업 대책에 1.3조엔, 저소득층 지원에 1.3조엔, 예비비에 1.5조엔 등을 배분. 한편 관련 사업을 위한 민간부문 지출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3.2조엔 수준

■ 캐나다 중앙은행, 6월 0.5%p 금리인상 방안 검토

- 맥클렘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언. 3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6.7%) 고려 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운 것 같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2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44, 2월(0.54), 예상치(0.21)
- 미국 4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1.1, 3월(8.7), 예상치(11.3)

■ 주요 경제 이벤트(4/2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내구재수주,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 상승이 수요 둔화를 유도할 가능성 - 블룸버그

(Don't Count On a Housing Slowdown to Improve Affordability)

- 주택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비율, 재고 부족 지속 등으로 주택시장에 위험 신호는 부재. 하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이 수요 둔화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우려. 특히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수요 둔화 조짐이 이미 관측. 향후 주택가격 조정이 이루어져도 높은 이자부담 등으로 수요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소지. 이에 주택 공급은 수요 둔화에 맞춰 조절될 필요

■ 유럽 은행산업, 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이 수익성을 저해 - WSJ

(A Choppy First Quarter May Be as Good as It Gets for European Banks)

- ECB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역내 경제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경고. 은행산업은 거시경제의 영향을 조기에 체감하는데,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은 유럽 은행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일부 유럽계 은행은 해외사업의 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축적된 대규모 자본의 투자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 하지만 은행들이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따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글로벌 임의소비재 소비 감소, 미국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threat of a global 'buying strike' rises as cost-of-living hits)

■ 채권 및 주식 가격의 동시 하락, 현금 보유의 전략적 우위 부각 - WSJ

(Wall Street Finds New Value in Cash as Global Fears Weigh on Markets)

■ 미국 선물시장, 경기침체가 아닌 성장둔화 우려·유동성 감소 등을 반영 - Financial Times

(Investors brace for the Fed's slowdow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